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식

995㎡ 규모 25억8000만원 투입 … 농가 소득증대 도모

익산시는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촌진흥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25억8천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평소 가공창업의 꿈이 있어도 시설구축 등 위한 초기자금 부담과 창업절차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면적은 995㎡의 규모로 1층은 전처리실,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반찬가공실, 포장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2층은 가공실습교육장 등을 갖췄다.

또한 센터에는 잼류, 음료류, 즙류, 분말, 말랭이류, 유지류, 볶음차류 등의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40여종의 가공장비 등을 갖췄다.

센터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운영하며, 이용대상은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하고 유통전문 판매업을 등록한 농업인이다.

익산시는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유정순(성당면) 씨는 "센터 구축에 따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직접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등 법적사항을 올해 마무리하여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들이 로컬푸드매장, 학교급식,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3월부터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교육과 농업인대학 가공반을 개설하여 10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마케팅, 클레임에 대한 대처방법, 농산물 가공실습 등 이론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할 인적자원을 육성해 왔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자치행정경영대상 수상

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 도시 부문

자립도시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과 문화관광 도시 부문에서 각각 산자부장관대상과 ㈜TV조선방송사 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지방자치행정경영부문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부문과 문화관광도시 부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상과 ㈜조선방송사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군산사랑상품권과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해 지역자금 역외유출, 일자리창출, 지역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발전에 전국 지자체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상을 수여 받았다.

문화관광도시부문에서는 고유성+맛+축제를 연계한 꾸준한 관광 인프라 및 마케팅을 추진해 지난 2018년도 기준 5,879천명이 방문(전년 대비 2,628천명 증가)해 고용창출과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 지역 매출액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됐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고군산군도의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온리원(Only One)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지역의 맛집들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전통과 맛이 있는 대표음식점 129개소(맛집, 모범음식점, 짬뽕, 특화음식, 향토맛집)를 발굴 지정하고 위생용품, 상수도 요금 감면, 맛집 홍보 등을 추진해 지역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맞춤형 긴급복지지원 추진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지역 맞춤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인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수혜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전액시비 재원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에 초과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기준중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위기사유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단기간 도움을 주는 우리시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천원), 일반재산은 1억1천8만원에서 1억3천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백만원, 주거비 7백만원에서 생계 및 주거비는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3가지 항목이며 생계비 4인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이내(1회)를 지원하며 상담 및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454-3080)로 문의하면 된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게 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함열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

40억 원 투입, 2020년까지 공급관 설치 완료

익산 함열읍 지역에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된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함열읍 지역에 이달부터 2020년 12월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전북에너지서비스, 지역주민대표 등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로써 25년 간 이어져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이번 공사는 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도·시비 각각 12억원과 전북에너지서비스 16억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군도 23호선 확·포장 사업과 연계해 제3산업단지에서 함열읍까지 총 공사구간 9km중 올해는 4.2km구간에, 2020년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 공급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 말에는 함열읍 지역 아파트와 연립 등에 도시가스가 공급돼 서민들의 연료비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익산시는 올해 추가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 등 100세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대 당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백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창구 경제관광국장은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 공급으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체육회 이사회 개최 민간체육회장 선거 논의

군산시체육회(회장 강임준)는 17일 군산체력인증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강임준 군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이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2020년 민간체육회장 선거 관련 경과보고와 임원변경사항 보고, 경기 단체 가맹신청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육회는 내년 민간 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해 대한체육회로부터 시달 된 표준안에 따른 세부 추진 일정과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방식에 대해 공유하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했다.

강임준 회장은 "체육회에서는 오는 11월 21일까지는 선거 준비 및 관리, 계도,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임원 및 이사진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차질 없는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태풍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익산시는 제7557부대와 함께 지난 7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공무원 200여 명 및 제7557부대 군인들은 망성면 일대 시설하우스 피해농가에서 비닐 및 철골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정헌율 익산시장도 태풍 피해를 입은 망성면의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시는 이번 태풍으로 벼 도복 25ha, 시설하우스 142동 파손, 과수 낙과 4.6ha(낙과율 30%), 축사 1동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망성면 일대의 시설하우스가 집중적으로 파손되어 농작물 수확을 앞둔 농업인들이 큰 시름을 앓았다.

이번 피해농가 복구 지원은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사 사실조사 확인 후 실시됐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태풍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적 손실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시는 풍수해 피해 대비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580명 농가가 가입되어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행복도시 군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는 위촉장 수여, 아동친화정책 추진계획 심의, 정책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유관기관,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14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영유아상해보험가입,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놀이터 개선 및 놀이활동가 지원, 체험시설 조성 확대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지원을 의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